2019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11:00 ~ 11:50

◇ 장　　소 : 그리스도요양원 회의실

◇ 참석인원 : 대표이사　이X환

이　　사　김X호

이　　사　김X주

이　　사　김X영

이　　사　박X범

이　　사　표X옥

이　　사　현X나

○ 배석자 : 그리스도요양원 도X식 사무국장

○ 기　록 : 도X식

◇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의 건

○ 제2호 의안 : 그리스도구원선 기본재산처분의 건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대표이사 이*환 : 법인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및 제26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사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2019년도 제2차 그리스도구원선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2. 대표이사 인사

○ 대표이사 이*환 : 날씨도 더운데 저희 법인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는 저희 법인의 산하 병원인 예사랑병원의 증축과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건축비 와 설계·감리비 및 비품 구입비의 장기차입과 장기차입에 수반되는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시에 여러 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전차회의록 승인 : 전차회의록 표결 없이 접수·승인함.

○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을 도*식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도록 지시하고 도*식 사무국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 한 후 대표이사가 누락된 것이나 정정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자 참석 이사 모두가 이의 없다고 말하고 대표이사가 이의가 없음으로 전차회의록을 접수·승인한다고 선포하다.

4. 부의 안건 상정

○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제출한 총 2건의 부의안건을 일괄상정하다.

5. 부의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 승인(안)심의]

○ 대표이사 이*환 : 예사랑병원이 개원한지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114병상(개방병상 포함 127병상)으로 운영중이며 붙임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10명이 입원중에 계시고 직원은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원자수는 일시적인 숫자가 아닌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입원환자수입니다. 현재도 입원문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서 추가 입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영도구, 서구, 중구, 동구 4개구에는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입원수요에 대비하고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회에 복귀한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병원 증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에서는 병원 증축을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설계·감리비 및 비품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한하여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주 이사 : 대표이사님께서 현재 예사랑병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번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규모는 얼마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현재 예사랑병원 건물 옆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을 증축할려고 하며 건축면적은 지하 141.98㎡이고 지상1층 ~ 지상4층 까지 각111.17㎡로서 연면적은 약 586.66㎡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E/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표*옥 이사 : 그렇게 증축을 하면 병상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총 병상수가 172병상(개방병상 포함 190병상)으로 현재보다 58병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 표*옥 이사 : 현재 법인의 부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대표이사 이*환 : 법인의 부채현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만 2019년 6월30일 기준 대표이사 개인차입금 2억2천만원, 우리은행 6천만원, 부산은행 5억3천3백만원등 총 8억1

천3백만원정도입니다.

○ 김*영 이사 : 처음 예사랑병원 증. 개축을 위하여 1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많이 상환을 하셨군요.

○ 대표이사 이*환 :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상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차입금은 물론 추가 차입금도 더 수월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인의 재정이 건전화되고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 입원환우분들에게 더욱 질높은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 이사 : 증축을 위한 소요자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공사비 8억원과 설계비 2,200만원, 감리비 1,100만원, 비품구입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차입금 이상의 비용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차입금은 8억원입니다.

○ 박*범 이사 : 2015년 당시에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기본재산차입 5억원에 대하여 이사회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예사랑병원은 처음에 180병상으로 건축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시작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병원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추가로 증.개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산광역시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법인에서는 이 의견을 수용하여 처음에 127병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원 후 약 1년이 지난 2015년에 입원환자수가 100명에 도달하여 이사회승인을 거쳐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부산시에서는 담보물 감정평가액 21.6억 대비 차입금이 18억원(기존 13억원, 추가신청 5억원)으로 담보부채비율이 83%로

높을 뿐만아니라 상환계획서대로 수익이 창출된다고 예단하기 어렵고, 향후 경영악화로 부채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차입허가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 박*범 이사 : 그럼 2015년 장기차입허가가 반려된 당시와 현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가 13억원에서 5억원으로 약 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8억을 차입한다고 해도 당초 13억과 같은 금액이며, 증축을 하게되면 병상수가 늘어나므로 그에 따른 수익도 늘어나므로 상환기일도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한 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년동안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수익창출이 추정치가 아닌 경영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이므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따라서 차입금 상환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원 환자수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허가병상수를 채우고 있으므로 증축이 되어 병상수가 늘어나면 짧은 시간내에 늘어난 병상수만큼 환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나 이사 : 지금 증축을 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라도 있습니까?

○ 대표이사 이*환 :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축하고자 하는 예사랑병원 인근 영도구, 서구, 중구, 동구 4개구에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병상수로는 앞으로 인건비나 물가 상승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입원수요에 대비하고 응급환자뿐만 니라 다양한 정신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치료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병원 증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김*영 이사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수익사업을 위한 증.개축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 대표이사 이*환 : 이사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예사랑병원증축은 법인

정관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관할기관에서 불허하여 결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번 증축건도 국고보조가 아닌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 이사 :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180병상정도이면 현상유지라고 합니다. 114병상으로 지금처럼 꾸준히 상환을 해 온 것은 운영을 잘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180병상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호 이사 : 2015년에는 증축을 위해서 5억원을 차입하고자 하였는데 이번에 8억원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건축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시에 비해 증축규모가 446.40㎡에서 586.66㎡로 약 1.3배 확대되었습니다. 규모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집단치료실 및 재활치료실이 병동이 아닌 1층에 있어 환우분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2층과 3층으로 나누어 병동내로 이동배치하고, 면회실을 새로 설치하여 보호자들이 환우분들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침대용 E/V를 설치하여 직원 및 환우분들의 층간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증축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표*옥 이사 : 증축을 계획했으면 노무 단가등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호 이사 : 만약 차입을 하게 되면 금리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금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제1금융기관에 타진을 해 본 결과 약 4%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이사 : 대표이사님께서 잘 처리 하시겠지만 만약 장기차입이 이루어진다면 최소

한의 이자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금융기관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이*환 : 물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차입과정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주 이사 : 모두에 대표이사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근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살해하거나 이웃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빈발하여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심각하지만 막상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입원할 곳이 마땅히 없고 퇴원 후에도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 증축을 하게되면 환자충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예사랑병원이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아 거의 100명의 환자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허가병상이 모두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동구,서구,중구,영도구에는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입원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확보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2019년에 증축을 완료하여 매년 20명정도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여도 2022년도에는 증축한 병상수를 포함하여 모든 병상이 충원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본인이나 보호자, 지역사회가 부산시에 응급입원을 요청하여도 부산시립정신병원마저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부산시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조기에 증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 이사 : 예사랑병원은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전문병원인데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사랑병원이 위치한 부산시 서구에는 대학병원이 3곳이 있는데 대학병원과도 유대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이*환 : 서구에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 병원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처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범 이사 : 현재 예사랑병원이 남아 있는 병상수가 없으니 지역적인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증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김*주 이사 :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병상수가 증가되는 것 외에 기존의 입원환우분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치료실과 재활치료시설을 병동내로 이동배치하고 면회실을 설치하는 등 기존의 환우분들에게도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영 이사 : 기존의 차입금에 대해서 첨부된 대출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차질없이 상환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축을 위한 차입이 이루어진다면 매월 상환금액이 늘어나게 될텐데 추가 상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대표이사 이*환 : 금번 증축을 위한 차입이 이루어지면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2019년부터 바로 상환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을 할 계획이며 운영상태에 따라 조기에 상환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설된 병상수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 약33억원, 비용 약29억원으로 순수익은 4억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총 13억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계획에 의거 매년 1억5천만원씩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호 이사 : 지난번에 허가가 반려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꼭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표이사 이*환 :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주 이사 : 현재 예사랑병원의 병상수가 충원된 상태이며 입원문의도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장애우의 입원치료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병상수를 증설하여 입원수요에 대비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우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사랑병원의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에 동의합니다.

○ 김*영 이사 : 기존의 차입금도 차질없이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로 차입을 하여도 병상수가 늘어나면 상환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주이사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 김*호 이사 : 김*영이사님의 찬성에 재청합니다.

○ 현*나 이사 : 장기차입승인에 동의합니다.

○ 박*범 이사 : 장기차입승인에 동의합니다.

○ 현*나 이사 : 장기차입승인에 동의합니다.

○ 표*옥 이사 : 장기차입승인에 동의합니다.

○ 대표이사 이*환 : 금번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승인에 참석이사님 전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8억원의 장기차입(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2호 의안 : 예사랑병원 증축을 기본재산처분 승인(안)심의]

○ 대표이사 이*환: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을 위해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이사 : 장기차입허가가 이루어져도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어떤 물건이 처분되는 지를 명시하여 장기차입허가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박*범 이사 :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해서 처분하고자 물건은 어떤 것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병원 증축을 위해서 처분(담보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은 현재 예사랑병원 부지와 건물로서 부산시 서구 2가 89-275 번지 2,493.6㎡의 토지와 현재건물 1,592.95㎡과 증축면적586.66㎡, 병원 부속건물인 9.30㎡의 경비실입니다.

○ 김*호 이사 : 기존 토지 2,493.6㎡와 현재건물 1,592.95㎡, 경비실 9.30㎡은 이미 처분허가가 되어 있으므로 증축면적586.66㎡에 한하여 처분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대표이사 이*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처분허가를 받은 토지 2,493.6㎡와 현재건물 1,592.95㎡, 경비실 9.30㎡과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 586.66㎡을 합하여 전체를 처분허가를 받는 것과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 586.66㎡에 대해서만 추가로 처분허가를 받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이사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만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 이사 : 그러면 기존에 장기차입허가를 받은 부분도 신규 차입금이 생기는 등 변화가 있으므로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과 같이 처분허가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이*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처분허가를 받은 토지 2,493.6㎡와 현재건물 1,592.95㎡, 경비실 9.30㎡과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 586.66㎡를 합하여 처분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 이사 : 앞서 장기차입에 관한 심의시 2015년도에 허가가 되지 않은 사유중에 담보비율이 높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번 장기차입이 이루어지면 담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저희 법인의 등기부상 기본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몇 년 전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정확한 평가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지만 2015년 이후 약 8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비해서 담보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차입금13억원에 5억원을 추가로 차입허가를 받을려고 했던 상황이라 이번에 8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도 당시

의 기존차입금 13억원과 같은 금액이 되므로 담보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차입을 해줄 시중 제1금융권에서 담보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기차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그리고 지난번 차입한 금액 13억 수준으로 차입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표*옥 이사 :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2015년 당시의 기존의 차입금이 13억원이었고, 금번 추가로 8억원을 차입하여도 당시의 기존 차입금 13억원과 같아지니 담보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주 이사 : 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은 기본재산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재산 처분이 되지 않으면 장기차입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대표이사 이*환 : 장기차입을 위한 담보가 필요한데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차입이 불가능합니다.

○ 박*범 이사 : 그럼 장기차입허가와 기본재산처분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 대표이사 이*환 : 그렇습니다. 장기차입허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부산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을 시 허가를 내어 줍니다. 그러면 그 허가서를 근거로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차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김*호 이사 : 예사랑병원이 증축이 되면 법인의 재정상황도 개선이 되고 특히 입원치료를 원하는 정신장애우들이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만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사랑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정신과 병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기에 증축을 완료하여 예사랑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본재산처분에 동의합니다.

○ 김*영 이사 : 김*호 이사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 김ㅅ주 이사 : 김ㅅ영 이사님의 찬성에 재청합니다.

○ 현ㅅ나 이사 : 기본재산처분에 동의합니다.

○ 표ㅅ옥 이사 : 기본재산처분에 동의합니다.

○ 박ㅅ범 이사 : 기본재산처분에 동의합니다.

○ 대표이사 이ㅅ환 : 금번 예사랑병원 증축을 위한 기본재산처분에 참석이사님 전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지 2,493.6㎡와 현재건물 1,592.95㎡, 경비실 9.30㎡과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 586.66㎡에 대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이 통과됨을 선언합니다.

○ 대표이사 이ㅅ환 : 다른 안건은 없으십니까?

○ 대표이사 이ㅅ환 : 참석 이사님 전원 다른 안건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그리스도구원선 제2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50)

2019년 7월 2일

대표이사 : 이 ㅅ 환 ㊞

이 사 : 김 ㅅ 호 ㊞

이 사 : 김 ㅅ 주 ㊞

이 사 : 김 ㅅ 영 ㊞

이 사 : 박 ㅅ 범 ㊞

이 사 : 표 ㅅ 옥 ㊞

이 사 : 현 ㅅ 나 ㊞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조서

1. 일　　시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11:00 ~ 11:50
2. 장　　소 : 그리스도요양원 회의실
3. 참석인원 :
4. 심의 의결 내용

심 의 안 건 명	표 결 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호 의안 : 예사랑병원증축을 위한 장기차입승인(안)	7	-	-	-	원안가결
제2호 의안 : 기보재산처분(담보제공) (안)	7	-	-	-	원안가결

2019년 7월 2일

대표이사 : 이　✗　환 ㊞

이　　사 : 김　✗　호 ㊞

이　　사 : 김　✗　주 ㊞

이　　사 : 김　✗　영 ㊞

이　　사 : 박　✗　범 ㊞

이　　사 : 표　✗　옥 ㊞

이　　사 : 현　✗　나 ㊞